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한

국가의 경제수준과 여행수요간 상관관계 조사

7조

201410717 유진영

201410752 정한솔

201615024 김혜주

201610656 정윤희

201780082 홍사유



INDEX

01 서론

주제 선정 배경
가설 수립

02 본론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03 결론

결과

04 마무리

느낀점
자료 출처

01 서론

주제 선정 배경



" 워라벨 바람, 근로시간 단축... 해외여행 늘렸다. "



3025만명

전년 대비
14.2%↑



최근 3년 간 내국인의 해외여행 시장

연평균 18.1%↑

주제 후보

여행지의 SNS 해시태그
및 포털 검색어 기반 데이터 분석.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여행수요의 상관관계 분석.

여행지 트렌드와 의류산업과의
상관관계 분석.

국가 경제성장률 및 워라밸 지향에
따른 여행 수요 전망.



결정 주제

국가의 **경제수준**과 **해외여행수요**
간의 상관관계 검증

01 서론

주제 선정 배경



01

서론

가설 수립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여행의 수요와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분석대상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제수준 지표

1인당 국민총소득, 고용인원, 실업률, 연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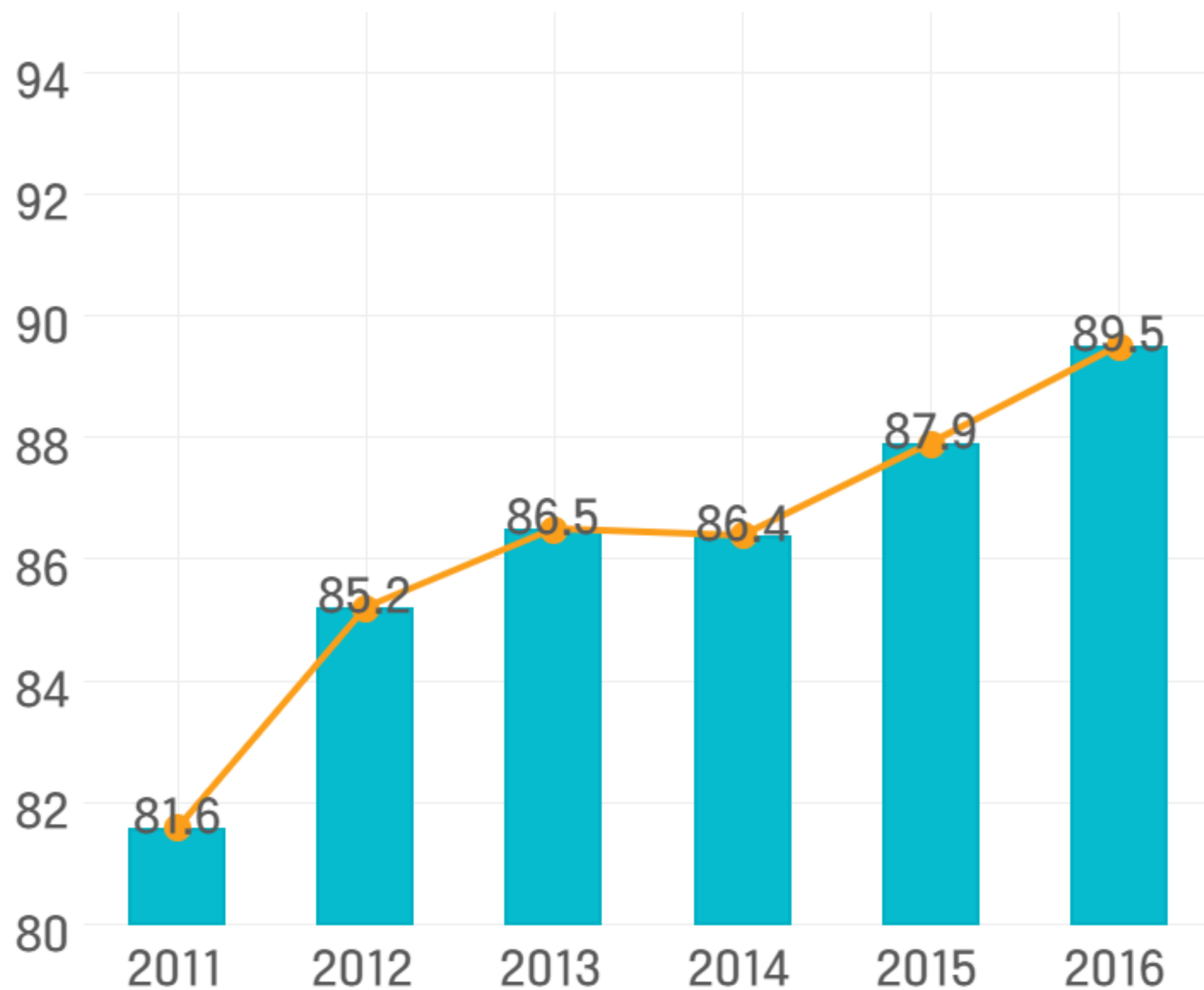
분석기간

경제수준 지표 : 2015 / 국민 여행 경험률 조회 : 2011-2016

02 본론 데이터 수집



국민 여행 경험률 조희 (20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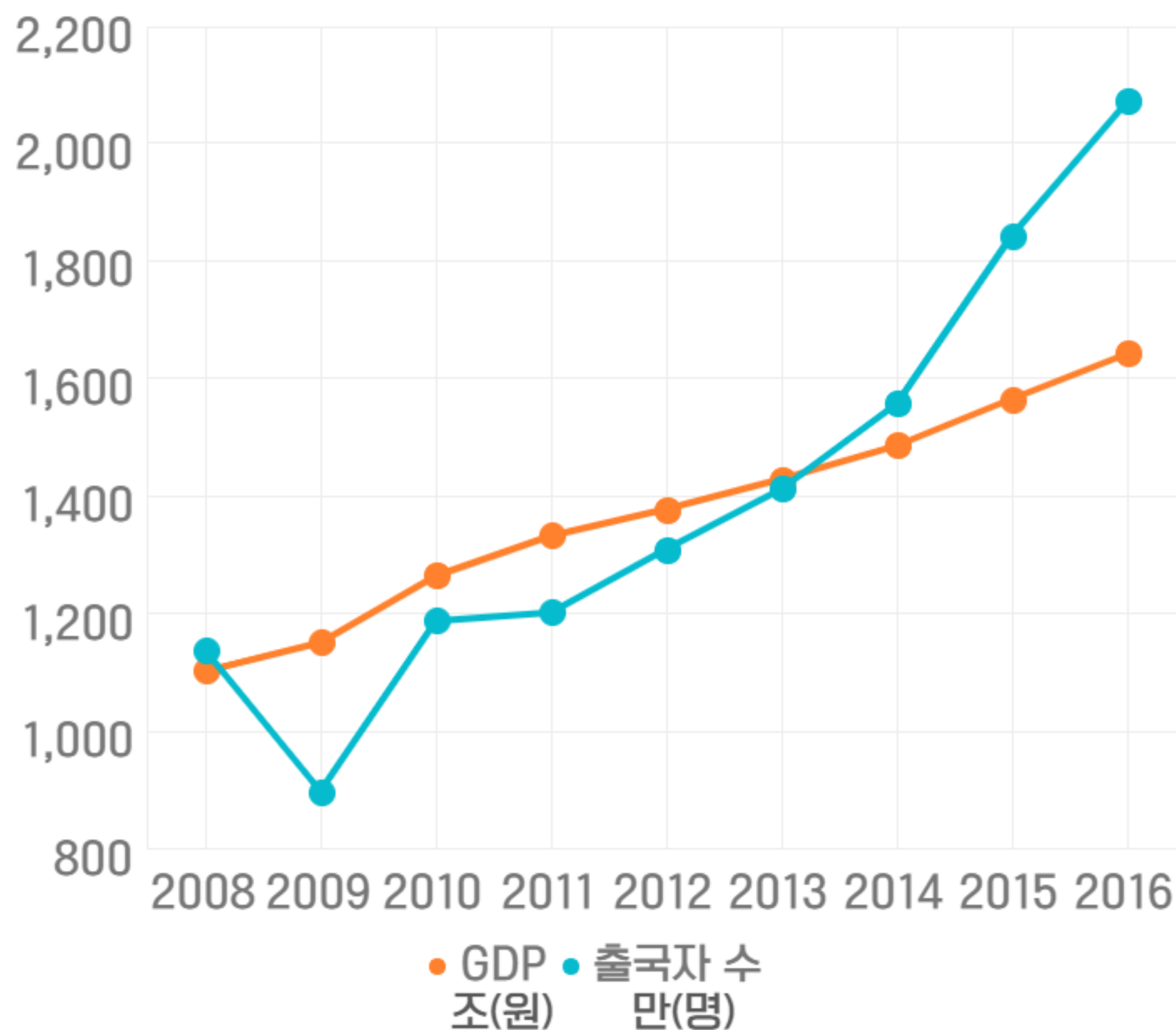


국민들의 여행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2 본론 데이터 수집



GDP와 내국인 출국자 수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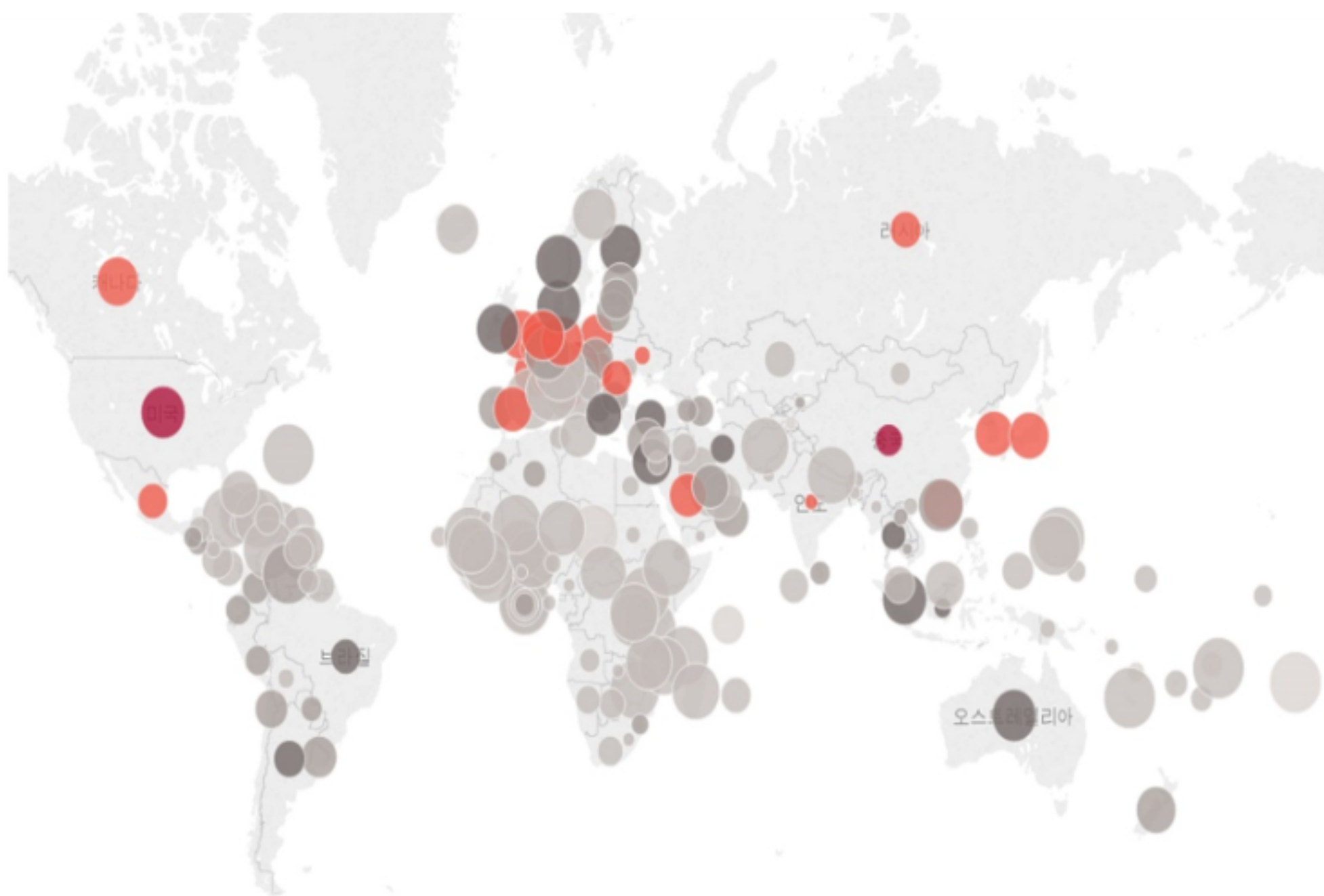


02 본론

데이터 수집



1인당 국민총소득과 내국인 출국자 수 (2015)



명도 : 내국인 출국자 수

크기 : 1인당 국민총소득

※결측치 발생국 제외

02 본론

데이터 수집



A world map illustrating the global distribution of companies. Green circles of different sizes are placed on the map, representing the number of companies in each country. The size of the circle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companies, with the largest circles found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China. The map includes labels for various countries in Korean, such as Canada (캐나다), Mexico (멕시코), Brazil (브라질), Argentina (아르헨티나), Peru (페루), Greenland (그린란드), Sweden (스웨덴), Finland (핀란드), Norway (노르웨이), Denmark (덴마크), Poland (폴란드), Czech Republic (체코), Slovakia (슬로바키아), Hungary (헝가리), Austria (오스트리아), Switzerland (스위스), France (프랑스), Spain (스페인), Portugal (포르투갈), Italy (이탈리아), Greece (그리스), Turkey (터키), Iran (이란), Iraq (이라크),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Egypt (이집트), Libya (리비아), Algeria (알제리), Sudan (수단), Ethiopia (에티오피아),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Botswana (보츠와나), Zimbabwe (짐바브웨), Mozambique (모잠비크),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India (인도), Pakistan (파키스탄), Bangladesh (방글라데시), Nepal (네팔), Bhutan (부탄), Myanmar (미얀마), Thailand (태국), Laos (라오스), Cambodia (캄보디아), Vietnam (베트남), Philippines (필리핀), Malaysia (말레이시아), Singapore (싱가포르), Indonesia (인도네시아), Brunei (브루나이), Timor-Leste (동티모르), Australia (호주), and New Zealand (뉴질랜드).

※결측치 발생국 제외

A stylized illustration of the Big Ben clock tower in London. The tower is brown with a grey roof and a clock face. Two people are in the foreground: a woman in a pink jacket and purple pants pointing at the tower, and a man in a black shirt and blue pants crouching to take a photo.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sky with two white clouds.

실업률별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 (2015)



명도 : 내국인 출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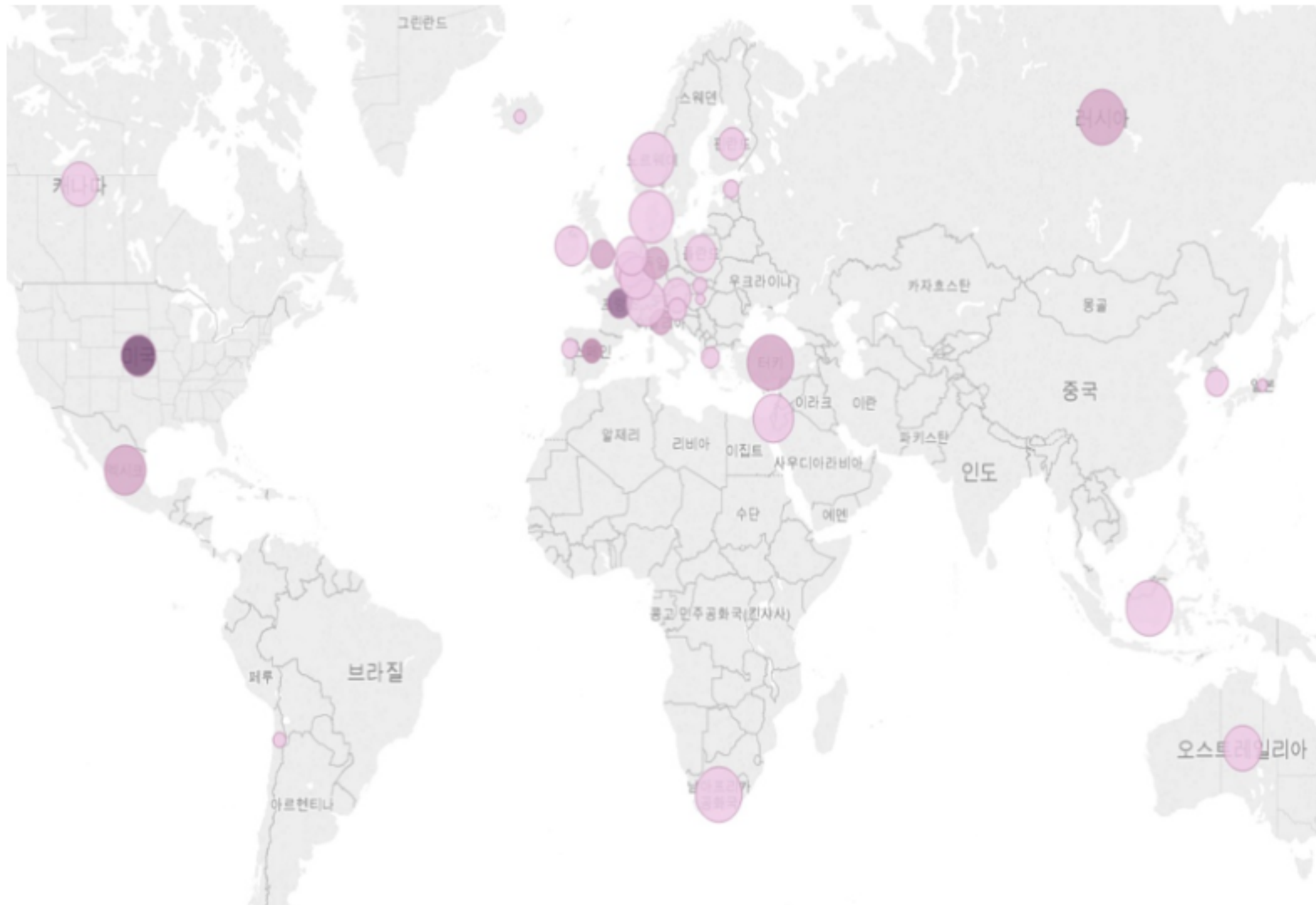
크기 : 실업률

※결측치 발생국 제외

02 본론 데이터 수집



연평균 임금별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 (2015)



명도 : 내국인 출국자 수

크기 : 연평균 임금

※결측치 발생국 제외

02 본론 데이터 수집



경제적 불황에도 해외여행 수요 증가

03 결론 결과

브릿지경제

2016-02

"불황에도 해외
여행"...여행업계,
지난달 해외여행
수요 '최대'

스포츠조선

2014-10

제주항공, 3분기
역대 최고 실적...
경기불황에도
활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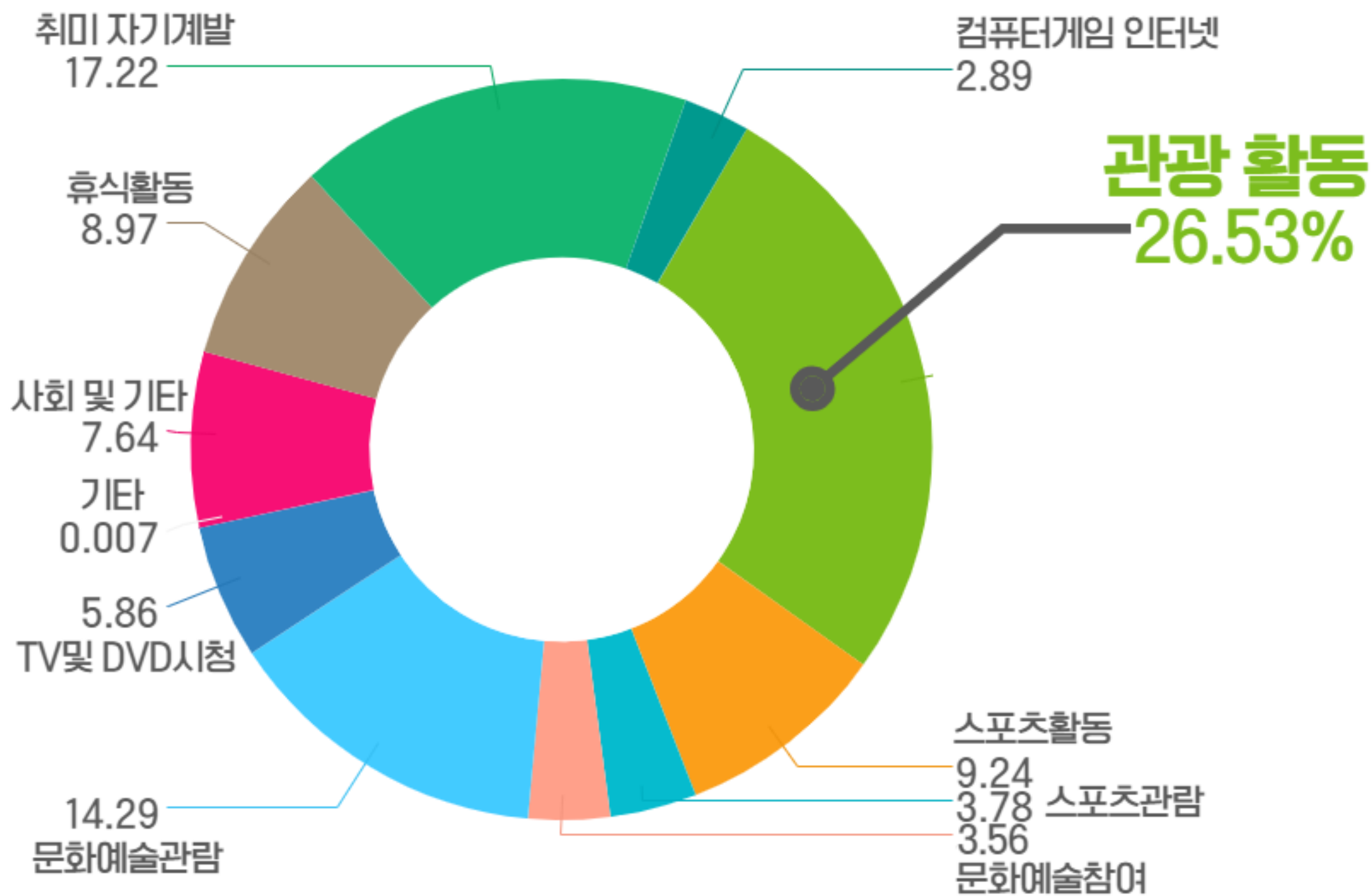
연합뉴스

2017-07

불황에도
'알뜰형' 해외여행
여행객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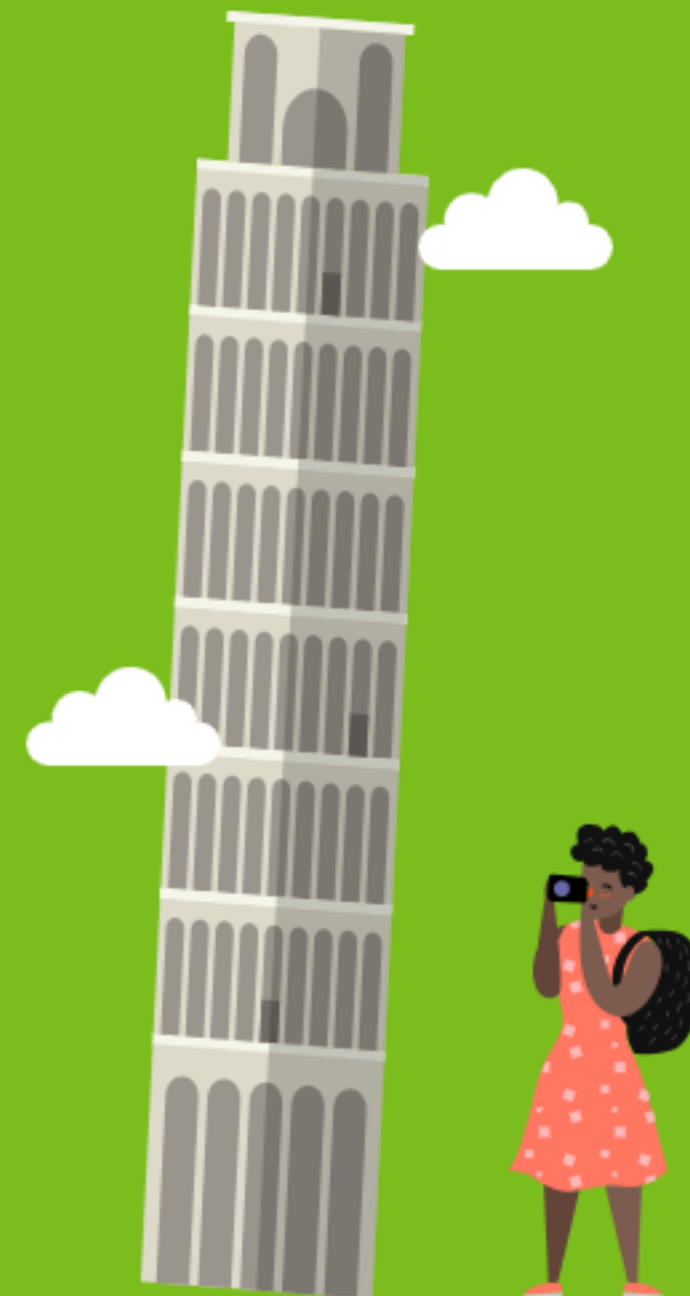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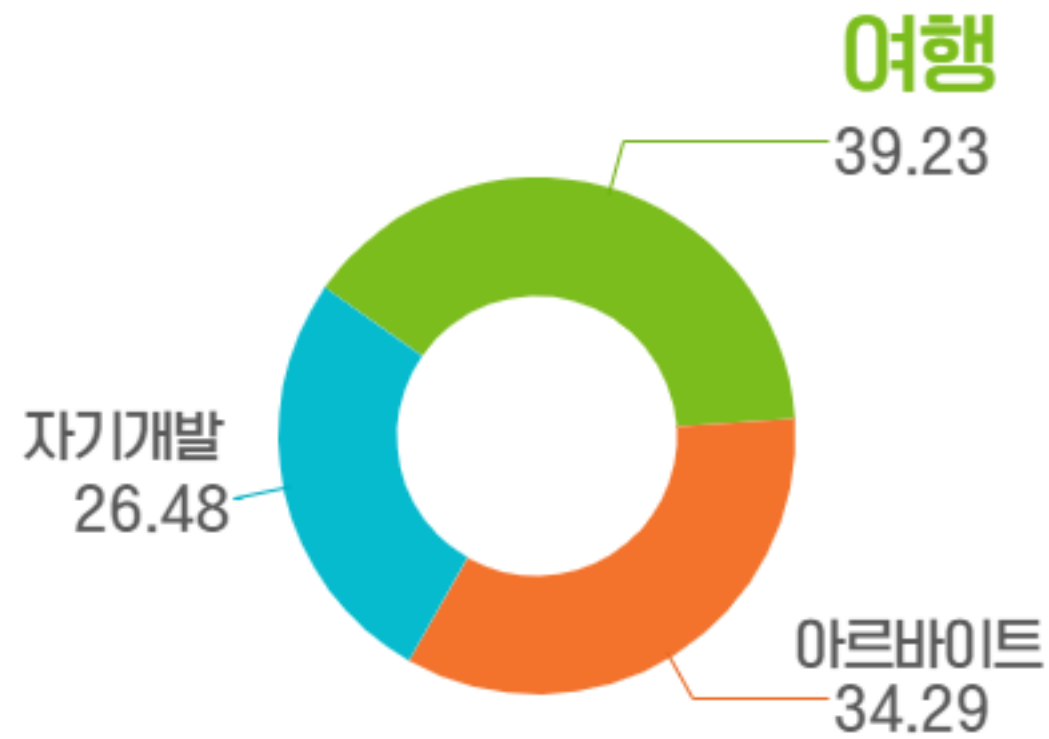


0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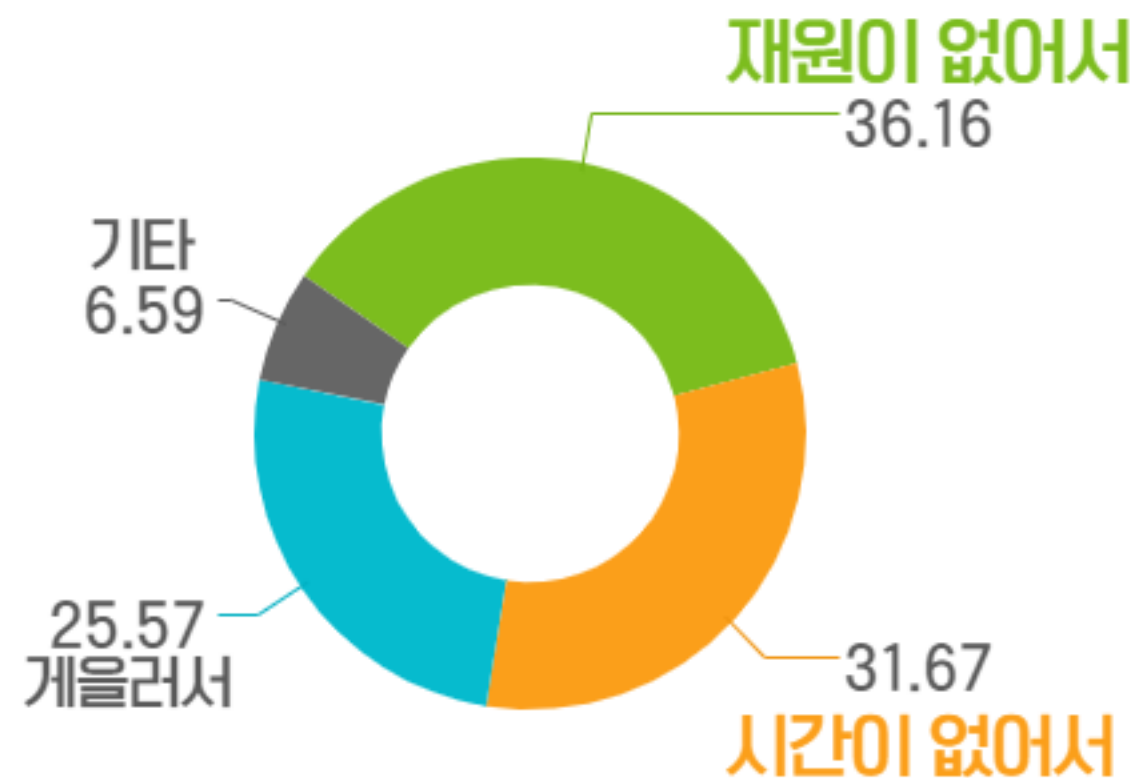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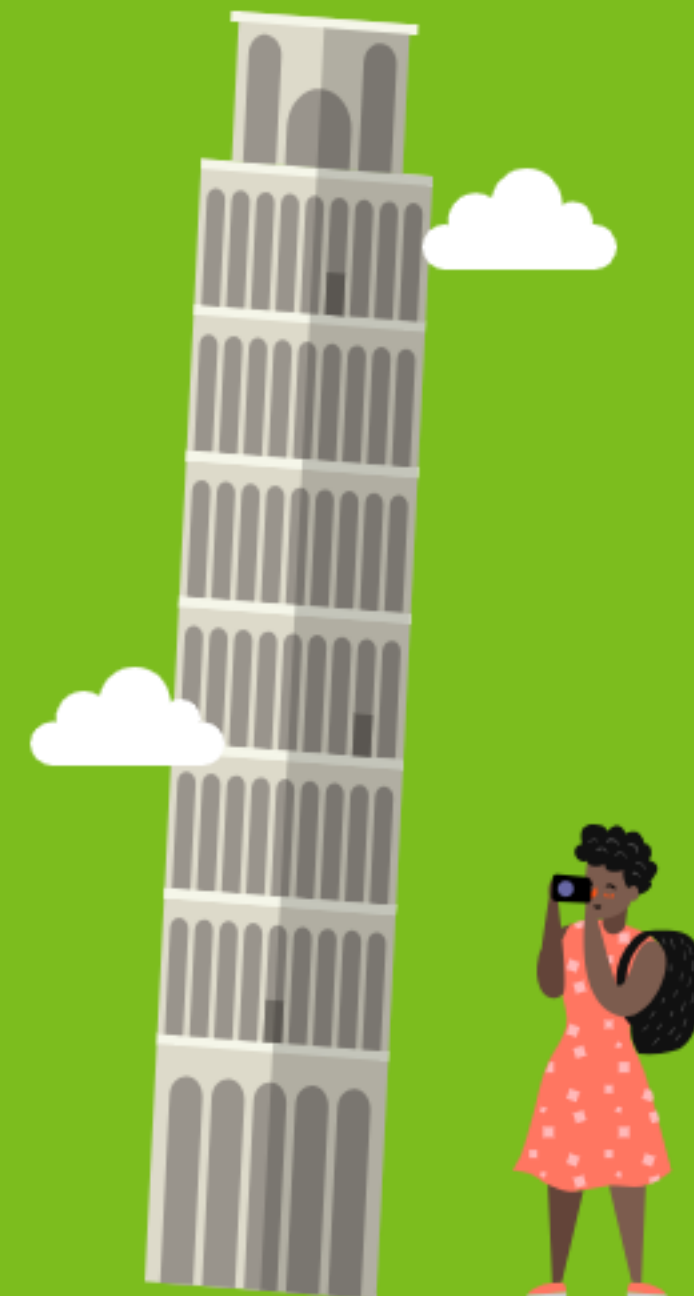
2018년 연초 버킷리스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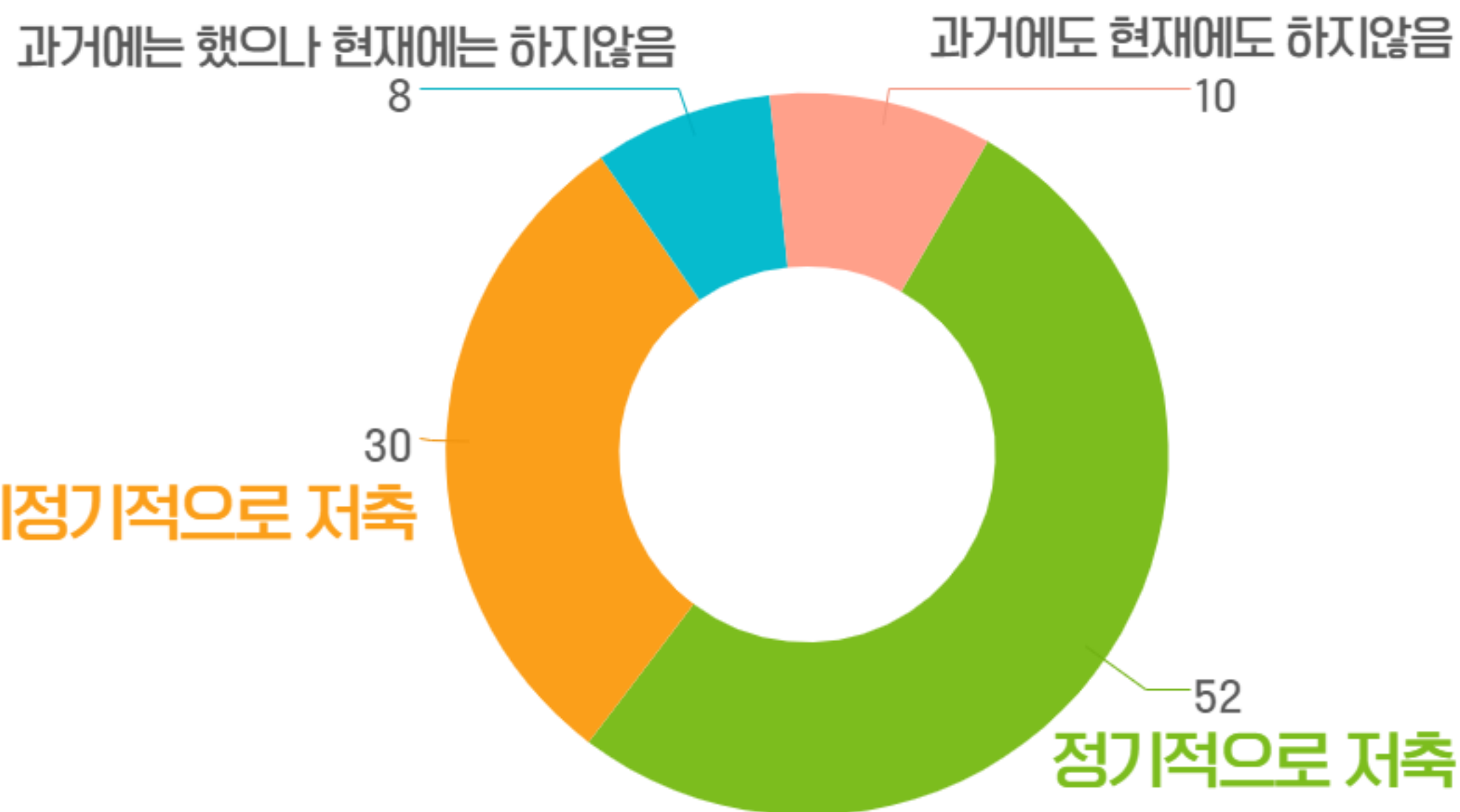
2018 연말 버킷리스트 이루지 못한 이유



03 결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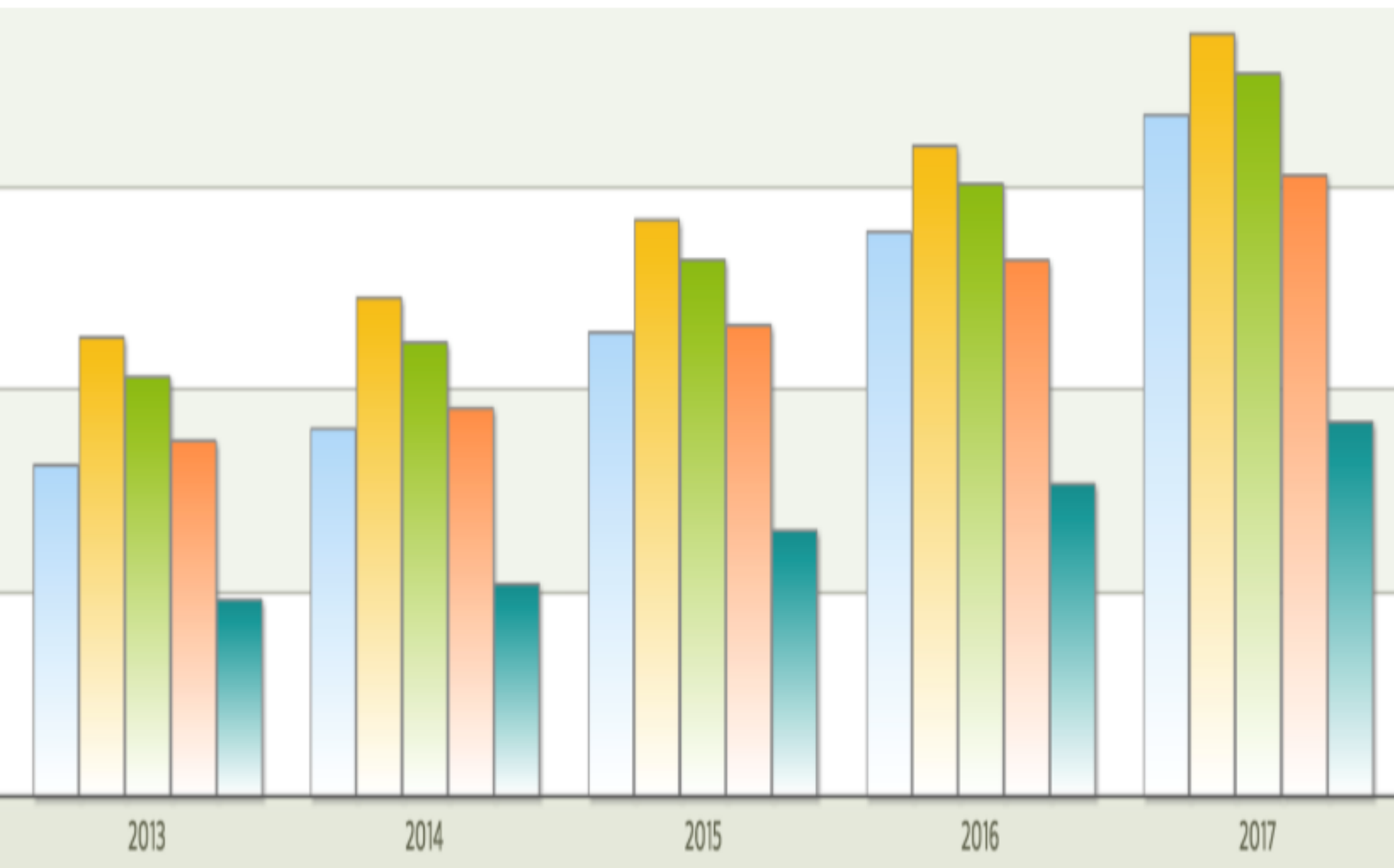
노후를 위한 저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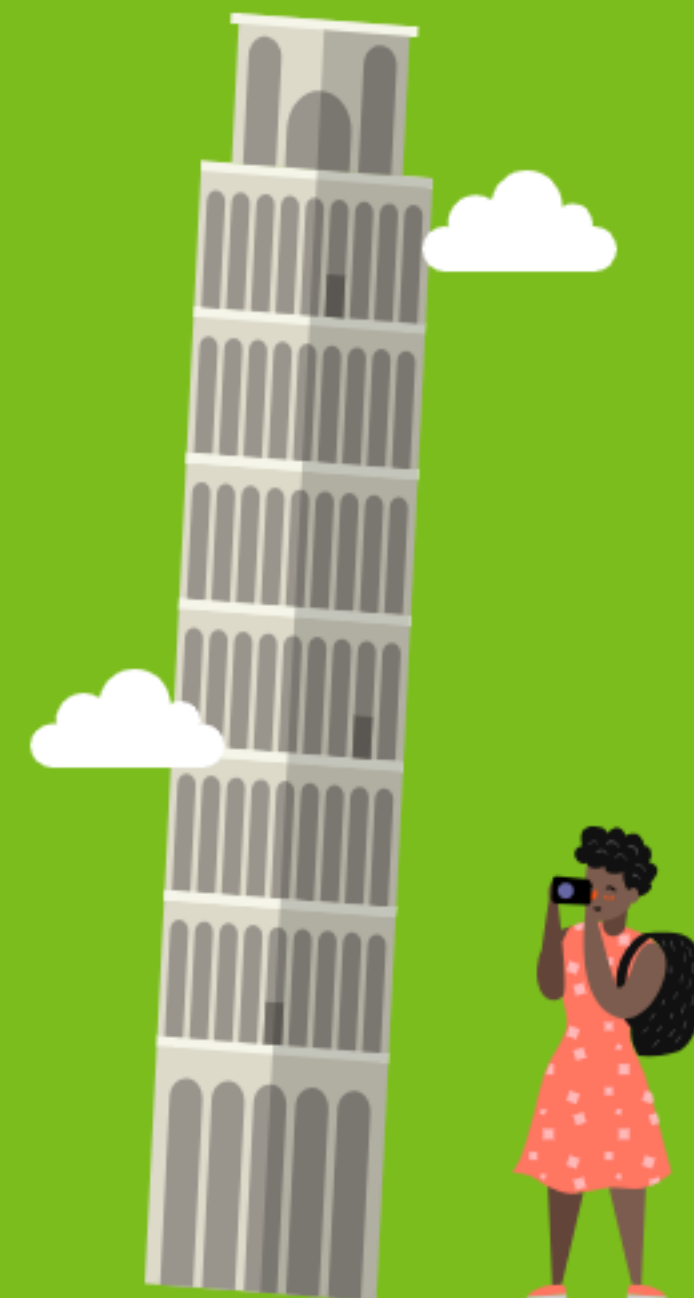
03 결론 결과



국내 연령별 내국인 출국자 수



03 결론 결과



03

결론

결과



“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해서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에 의해 여행에 대한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 (ex. 시간적 여유, 여행지의 치안 등)

국가의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개인의 **소비성향**에 의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04

마무리 느낀 점



정한솔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곳에서 자주 들었던 빅데이터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분석처리능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유진영

이번 데이터 분석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러한 분석 능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윤희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팀원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분석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아쉬운 점이 남았고 비슷한 주제로 다시 분석을 한다면, 그것을 고려하여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배워서 사용해보고 싶다.



김혜주

프로젝트 처음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지 막연하였지만 프로젝트 끝에는 조금은 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직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관심이 생기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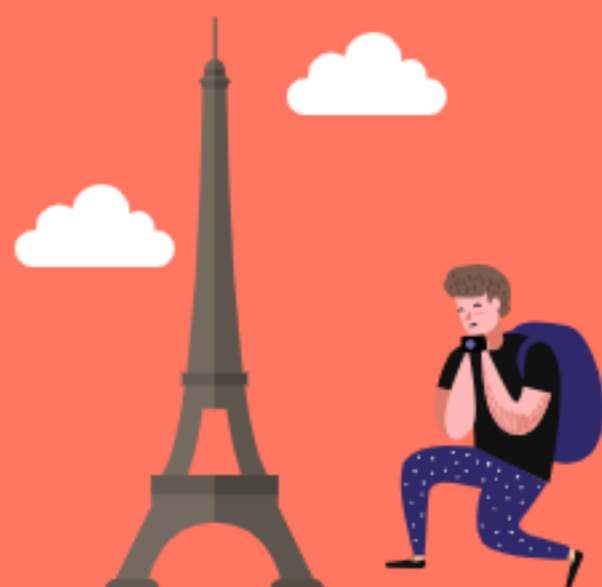


홍사유

기술적인 어려움과 언어적 어려움이 더해져 아주 어려운 수업이었지만 팀원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04

마무리 자료 출처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잡 코리아

공공데이터포털

한국투자증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SIS 국가통계포털



감사합니다.